

메주고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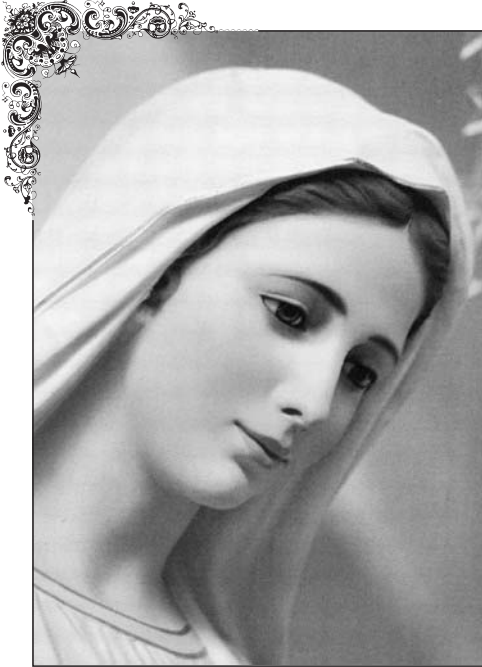


Medjugorje

December, 2008 제47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이 은총의 시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평화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동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통하여 희망이 은총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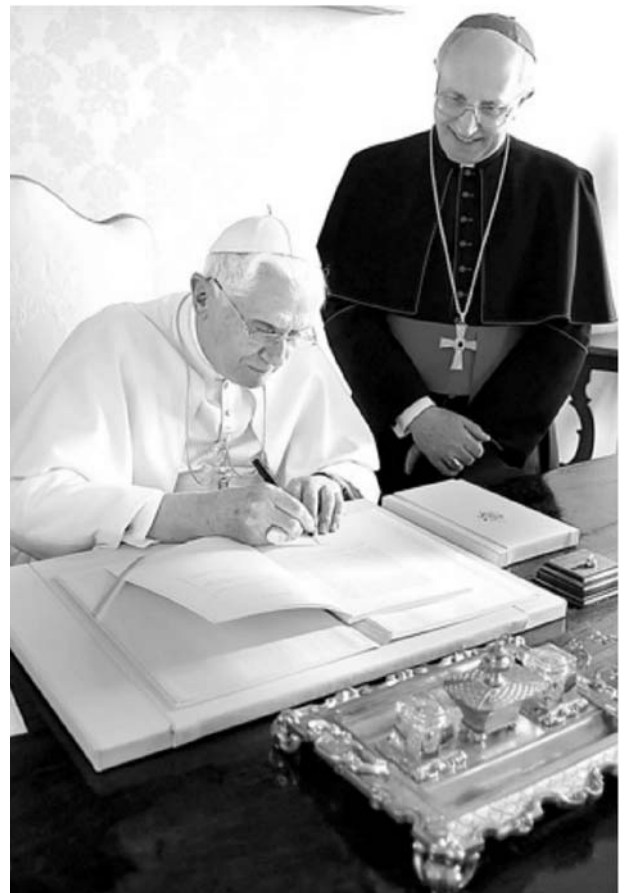
2008년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인간의 참 희망은 하느님뿐

- 교황 베네딕토 16세, 새 회칙 「희망으로 구원을」 발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1월 30일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주제로 한 회칙 「희망으로 구원을」(Spe Salvi)을 발표, 인간의 참 희망은 하느님뿐이라고 강조했다. (...) 교황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대신 인간 이성과 자유에 바탕을 둔 진보와 기술을 신봉하는 현 시대는 신앙의 위기이자 그리스도인 희망의 위기 시대이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며, 하느님 없이 인간은 희망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지평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교황궁 전 명예 신학자인 게오르게스 마리 마르틴 코티어 추기경은 교황청 공보실에서 열린 회칙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세상의 비참함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교황의 회칙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바티칸시티=외신종합】 평화신문 2007. 12. 09발행 [948호]참고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Deniel과 Christina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어주소서.
- 성모님, 진도미니카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을 빌어주소서.
- 예수님 성모님, 기도 한번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주소서.
- 캐롤린이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낙태아들의 영혼과 모든 연옥영혼들든 위하여 위령미사 드립니다.
- 사랑, 믿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부부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 극심한 핍박과 고초를 겪고있는 북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불쌍한 조상들과 가정의 치유로 구원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 8월 6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 100일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 한국에 계신 이해인 수녀님 건강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 자비로우신 성모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 해고된 직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부모님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 예수님을 불신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춘기인 다니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신 스테파노 신부님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 흥 바로로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주소서.
- 용서 못하는 이 아픔을 봉헌하오니 조건 없이 사랑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 모든 가족들이 주님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저 지향합니다.
- 성모님요셉이 마약의 유혹을 끊어 버리도록 주님께 힘과 용기의 은총을 청하여 주소서.
- 세상을 뜬 작은 아들의 영혼이 하루빨리 성모님과 예수님의 손안에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먹지도, 입으로 마시지도 못해서 배에 호스를 넣고 있는 1살 짜리 리아의 건강을 위해서
- 남편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헤레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알라바마 버임햄 공동체의 성경공부가 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한 스테파노의 가톨릭 신학대학 입학과 성소와 주님 구원사업의 도구되게 하소서.
- 성모님, 돌아가신 아버지 영혼의 편안한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남동생,이경선, 시어머님의 영혼과 어려운 가정살림을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선교지를 통하여 매주고리에 발현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만방에 알려지기를바랍니다.
- 군입대한 스테파노, 신대건안드레아가 건강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님, 재해와 재난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가정과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어머니 마을, 신경남신부님, 백요셉신부님, 선교회 회원 가족, Illuri 신부님을봉헌합니다.
- 저희 부부가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보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성모님을 통하여 간구합니다.
- 명신부님, 반영역 신부님, 김종현 신부님, 강지원신부님, 안세현 크리스토퍼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 자애로우신 예수님, 성모님, 저의 사랑하는 남동생들과 여동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어머니의 뜻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은총과 축복을 주소서.
- 성모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안식과 사랑하는 딸의 학업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같이 빌어주세요.
-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께 Deniel & Christina의 영육간의 건강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10월과 11월 매주고리에 순례때 요조신부님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성 가정 고아원 원장

사랑하는 한인 신자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가족들의 영육간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고통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어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사탄과 악의 하수인들의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이나 태풍, 또는 다른 자연재해를 통한 재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우리 도움이 어디에서 오

는지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하느님께 돌아 갈 때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께 되돌아 갑시다! 지난 달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사탄이 우리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원래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마음과 몸으로 받아 들어서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에 빠진 노예가 되어 영혼을 잃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LA에서 일어난 산불과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봅니다. 몇 세기 동안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아주 오래 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소중한 것들을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이런 자연재해와 재앙들을 지난 역사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최신킴 기술로도 이런 재앙과 파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앙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느님께 대항하는 투쟁은 불

고통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전쟁은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느님과 투쟁하는 인류는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과학으로, 문명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불로 LA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주교와 사제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어, 모든 재앙과 악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과 몸을 치유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현대 문명과 과학에 의지하는 병들은 몸과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의 한 말씀으로 역풍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권능의 한 말씀만 해주소서. 이 기회가 우리를 위한 카타르시스가 되게 하시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나에게 부와 소유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안위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세속적인 확신과 계획들을 정화시켜 주시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물질은 한 순간 불에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 손에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늘나라의 희망과 평화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을

내리소서. 우리들 가정 안에 교묘하게 내재하는 세속적인 무신론의 불을 꺼주시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미움의 불을 꺼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평화를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미주 전 지역의 한인 신자들을 강복하시어 용기를 주시고 당신을 향한 굳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 이 말씀은 지난 2008년 11월 16일부터 20일 미주지역 한인신자들을 위한 피정지도를 마친 후, L.A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미주지역 한인 신자들을 격려해주시는 요조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녹취 및 재정리하여 주신 가톨릭신문 동시통역사 남기옥 마르따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메우고리에 성지 순례 안내

1월 : 이태리, 메우고리에 (11일)

2월 : 메우고리에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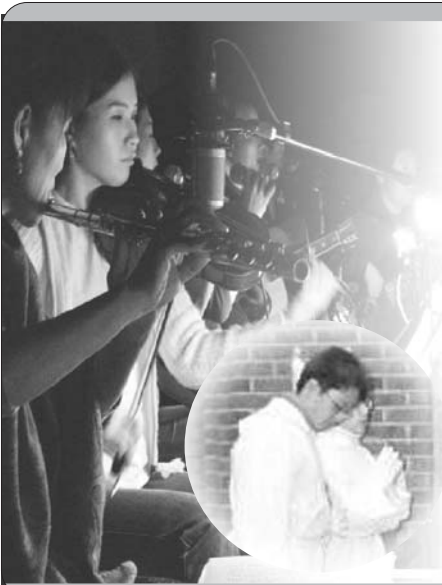
2월 : 루르드, 바니, 이태리, 메우고리에 (13일)

2월 : 이태리, 메우고리에 (11일)

성모여행사

☎ : (02) 538-4581 (053) 639-0211

김안나 011-9568-9436



메우고리에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 미사 및 성시간

일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목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5

e-mail : qpmmk@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 당신의 평화로 저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소서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카푸친 작은 형제회

2008년 11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이 은총의 시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평화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동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통하여 희망이 은총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이 은총의 시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평화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예수님의 성탄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어도 세상은 벌써 크리스마스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성탄 행사와 선물 준비에 바쁘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서는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성탄절의 핵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성모님의 부르심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십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 더욱 좋은 갈망들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말구유처럼 가난해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안에 그분은 새로이 탄생하십니다.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분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 20)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평화 그 자체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너희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평화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동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통하여 희망이 은총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제 책상 앞 벽에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상본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압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가 없는 이유는 사라져가고 있는 사물들에 집착하고,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 대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점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인류의 모습은 마치 단 한 차례의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고 말 모래성을 해변에 지어놓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를 제시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동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모든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은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모셔 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로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가지만 하느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마음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된 평화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 12)

예수님, 당신은 평화 그 자체이시고, 저희 평화의 근원 이시오니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저희 마음, 가정,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 안에 태어나시어 당신의 평화로 저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가 없는 이 세상, 동요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당신을 하느님으로 알아 뵈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으로써 참된 평화를 찾아 얻어 누리게 하소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당신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M**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안내

4월 : 이태리, 메주고리에 (11일)

7월 : 메주고리에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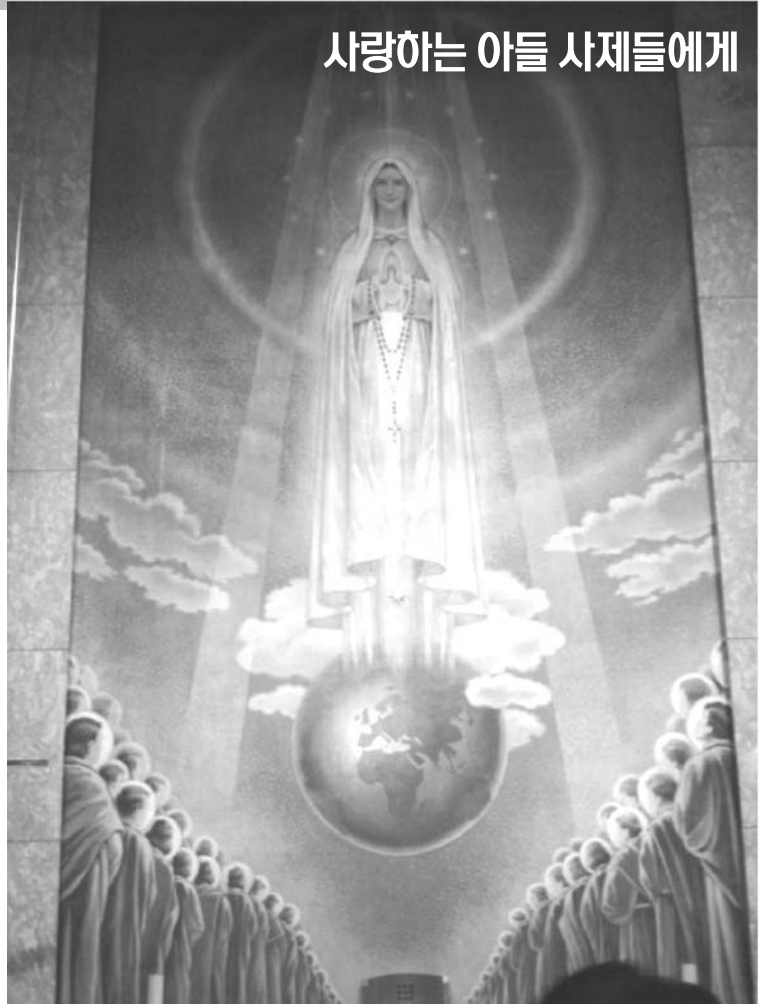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

☎ : (610) 366-9612 Fax(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나의 모성적 계획

575. 96. 6.27. 발드라고네(산마리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대륙의 마리아사제운동
주교 25명, 사제 300명과의 다락방
형태의 영성수련 피정



세계 전역에서 온 내 운동의 주교들과 사제들인 너희가 여기, 기도와 형제적 친교의 '지속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여간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해는 일찍이 없었으니, 이 '천상 엄마'의 요청이 금년에 가장 아낌없는 응답을 받은 셈이다. 나는 지금, 아들들이 자신의 말을 귀여겨들으며 따르고 있음을 느끼는 엄마의 흐뭇함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또 너희의 기도와 하나가 되고, 너희의 사제다운 일치를 심화시키며, 엄마로서 너희를 도와 서로 만나고 알고 사랑하게 한다. 사제인 너희 사이의 형제애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것은 나의 모성적 계획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 나의 모성적 계획은 너희를 성덕의 길, 희생제물이 되는 길로 이끄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가 죄에서, 또 너희 안에 있는 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순결의 길, 사랑의 길, 성화의 길로 이끌어간다. 내 임무는 너희를 악과 죄, 불순결과 불충실의 길로 인도하려고 유혹하는, 나의 원수이며 너희 원수인 자의 간계를 너희에게 밝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함께 세상 모든 길을 다니고 있고, 너희 모두를 각각으로 불러 내 티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오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너희를 길러 위대한 성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나의 모성적 계획은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주고, 너희

의 상처마다 향유를 부어주며, 실망에 빠질 때면 신뢰와 큰 희망을 주는 데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이냐! 바로 정화와 대환난의 최종 시기이니, 사실 온 인류는 악령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내 교회는 오류, 분열, 불신, 배교라는 폭풍에 뒤흔들리고 있다.

너희는 이렇듯 고통스러운 상황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온 교회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보다 더욱, 내 모성애의 부드러운 위로를 체험하게 되리라. 내 팔에 안고 어루만지며 위로해 줄 작정이니 말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에게 내 티없는 성심의 피난처로 들어오라고 하는 까닭이다. --- 나의 모성적 계획은, 수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할 교회를 도와 주는 데 있다.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써서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지난 여러 해에 걸쳐 내 티없는 성심에서 쏟아낸 메시지의 말을 통해 나의 부름과 양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바로 내 모성적 자비의 현존이 되어라. 교회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모든 고통을 씻어 없애며, 방울져 흐르는 그 고귀한 피를 모

오고, 찢어져 피 흐르는 상처마다 너희의 사제다운 입맞춤을 해주어라. (또한) 교황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바란다. 그는 지금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고통스러운 때를 살고 있다. 주교들에게도 사랑과 순종으로 아들다운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모든 형제 사제들 곁에 머물러 있되, 특히, 더없이 괴로운 절정으로 치닫는 재난의 중압에 굴복하고 있는 사제들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기에 너희는 지금 내 티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나의 모성적 계획은 고통스러운 구원의 시기에 온 인류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정의'가 하느님의 '자비'와 결합할 때가 임박했다. 너희 모두, 그 정확한 큰 재난의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내 티없는 성심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빛살이다. 자비로운, 그러나 고통스러운 징벌의 때를 밝히기 위한 사랑의 빛살이다. 세상에 드리운 어둠의 때, 큰 암흑의 때를 나의 모성적 자비의 빛으로 비추어라.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내 모성애의 향유를 주어라.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활동하고 싶다. 대재난의 극점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주는

구제책은 바로 나 자신이니,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곧 교회와 온 인류에게 나 자신을 드러낼 작정이다.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기는 이 큰 임무를 위해 나의 부름과 양육을 받아온 것이다. 그러니 모두 안전한 피난처인 내 티없는 성심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기쁨과 큰 희망을 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나가거라. 여기에서 너희는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은총인지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흐뭇해하시며 너희를 굽어보시고, 너희에게 마음을 바꾸는 선물을 내려 주셨다. 내가 죄투성이인 너희의 작은 마음을 내 티없는 성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신적 '사랑'의 정원에서 날마다 친히 가꾸고 계신 새 교회의 새 심장이 되어라. 평화롭게 이 산을 내려가서 세상 곳곳에서 내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다오. 너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너희의 사제 직무에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너희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M**

(이 메시지는 1973년 부터 1997년 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세 어린이를 찾아 온 천사

성모 발현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천사가 미리 발현목격증인들에게 나타나 발현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 특이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천사가 나타났으며 세 번째 방문 때는 천사가 그들에게 성체와 성혈을 주었다. 1차 대전이 끝나기 전인 1916년 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였다. 9살의 루시아와 그녀의 사촌들인 8살된 프란치스코, 6살된 히야친타는 양들을 몰고 있었다. 루시아는 7남매 중 막내였으며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도 11자매 중 막내와 바로 위의 오누이였다. 워낙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가정이었기에 그들은 학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였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그들은 루시아 아버지 소유의 목초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양들이 들판에 나 있는 풀들을 뜯어 먹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슬레잡기와 숨바꼭질 등의 놀이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날씨가 변덕을 부려 먼 북서쪽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 있는 바람이 이슬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부리나케 양들을 몰아 그들이 알고 있던 동굴로 비를 피하려 갔다. 비가 그쳤지만 어린이들은 동굴 속에서도 밖에 해가 뜬 줄도 모르고 놀이에 열중하여 있었다. 어린이들이 밖에 나왔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더니 그 위로 눈보다 더 흰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점점 가까와 지더니 투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 파티마 성모 발현과 메시지 (1) -

명하여 밝게 빛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젊은이가 어린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두려워 마라. 나는 평화의 천사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 기도를 세 번 하였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주소서." 그리고는 일어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가 간청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젊은 천상의 방문자는 왔던 것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어린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을 받아 한 동안 얼이 빠진듯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다. 얼마 후 제 정신이 돌아 온 어린이들은 함께 그 아름다운 기도를 반복하였다.

그 해에 어린이들은 또 한 번 그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올리브와 아몬드 나무가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목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자 그 전에 어린이들이 처음 보았었던 평화의 천사가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기도, 기도를 많이 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였다. 그리고 죄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하도록 간청하고 기도와 희생을 바치면 포르투갈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포르투갈의 수호 천사라고 소개했다. 그 해의 세 번째 방문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천사가 든 성작 위에는 성체가 떠 있었고 그 성체에서 핏방울이 성작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작과 성체는 공중에 그대로 둔 채 천사는 땅에 엎드려 기도를 세 번 반복하였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여,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천사는 일어서서 성작과 성체를 손에 들고서 루시아에게는 성체를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에게는 성작에 든 성혈을 영해주면서 말하였다.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석하여 너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그리고 한 번 더 땅에 엎드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세 번 더 바친 뒤 사라졌다.



(사진 : 발현 목격자 왼쪽부터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루시아)
루시아는 천사의 두 번째 방문 이후 영혼 내에서 관통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루시아에게 물어 보았다. "천사가 루시아에게 준 것은 성체였는데 나와 히야친타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지?" "그렇게 하는 것도 영성체야. 성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못 보았니?" 하고 히야친타가 대답했다. "나도 내 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지.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말하고 땅에 엎드려서 천사가 가르쳐 준 성삼위에게 바치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천사가 어린이들에게 성체를 준 사건은 이후 1961년에 시작된 스페인의 가라반달의 발현에서도 일어났으며 가라반달에선 미카엘 대천사가 발현목격증인 어린이들에게 성체를 준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볼수 있었으며 또 이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

성모님 발현

천사의 방문이 있던 후 1년이 지난 1917년 5월 13일 성모님께서는 세 명의 어린이, 루시아, 히야친타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 발현하셨다. 20세기 성모님의 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현 중의 하나인 파티마의 발현이 시작된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목주를 가슴 부분에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은 하늘에서 왔고, 천국과 연옥 그리고 지옥이 존재하며 세 어린이에게 자신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죄인들의 회개와 죄의 배상을 위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셨다. 세 어린이는 16세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후 성모님께서는 6월 13일, 7월 13일, 8월 15일, 9월 13일 그리고 10월 13일 6번 세 아이들에게 연속해서 발현하시어 앞으로 세상과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1917년 6월 13일에 루시아는 성모님께 자신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뜻밖에도 루시아는 하느님께서 지상에 오래 남겨 두실 것이며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프란치스코는 발현 다음 해인 1918년에 유행하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이듬 해인 1919년 4월 4일 성모님을 따라 먼저 천국으로 올라갔다. 히야친타 역시 병에 걸려 1920년 2월 16일 리스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 성모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올라갔다. "너는 살아 생전에 내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볼 것" 이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은 루시아는 이후 갈멜 수녀회에 입회하여 봉쇄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2005년 2월 13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하느님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태양의 기적-

성모 발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동시에 목격하여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던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파티마에서 일어났다. 성모님께서서는 파티마에서의 세 번째 발현인 1917년 7월 13일 세 어린이들에게 파티마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실제 발현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10월에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8월과 9월의 발현을 거쳐 10월에는 엄청난 기적이 발현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포르투갈 전역에 퍼졌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걸어서 포르투갈 파티마의 조그마한 지역인 코바 다 이리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10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치 세상 끝이 다가온 것처럼. 온통 진흙탕이 되어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걷기도 힘들어진 길을 따라, 코바 다 이리아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 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 보려는 신앙의 기적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과 지치고 슬픈 마음을 치유 받을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되자 폭풍우의 기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길 바닥은 밤새 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해가 뜰 무렵에도 날씨는 여전히 험악했다. 시커먼 구름들이 파티마를 뒤덮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구름에 완전히 덮힌 하늘에서 본격적으로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거센 바람이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고 비에 흠뻑 젖은 사람들은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도 피할 곳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발길을 돌려 돌아 가는 사람도 없었다.

발현 예정 시간인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루시아가 소리쳤다. "저기! 히야친타. 무릎 꿇어! 부인께서 오신다. 번쩍이는 빛을 봤어." 어린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믿는 사람들도 무릎을 꿇었다.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발현 때 보이는 무아경의 표정이 나타났다. 루시아가 천상의 아름다운 여인에게 질문을 하였다. "당신은 제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나를 기념하여 이곳에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전쟁은 곧 끝나고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 오게 된다." "네." 하고 루시아가 답한 후 질문을 하였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라며 천상의 방문자는 약속대로 그 신분을 밝혔다. 경건한 침묵이 흐른 후 루시아가 성모님께 다음과 같이 말

씀드렸다.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청을 받았습니다. 그 청들을 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성모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것은 들어 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 받기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느님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느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루시아가 "다른 요청은 없으시나요?" 하고 묻자 성모님께서서는 "다른 것은 없다."고 답하셨다.

그 후 묵주기도의 모후께서는 서서히 동쪽으로 움직였다. 어린이들은 성모님이 손을 펴서 구름이 덮고 있는 하늘을 향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신호라도 되는 듯이 비가 완전히 멈추었고 하늘을 뒤덮고 있었던 두터운 구름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묘한 은빛 원반처럼 회전을 하고 있었다. 루시아, 히야친타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늘로 향한 성모님의 손에서는 태양 빛을 무디게 하는 듯한 광선들이 나오더니 태양을 향해 뻗어 나갔다. 루시아가 소리쳤다. "태양을 보세요!" 성모님께서서는 태양 오른쪽에 서 있었고 태양 왼편에 성 요셉이 그의 왼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어린이들은 볼 수 있었다. 성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의 팔을 들어 올려 군중들을 향해 십자 성호를 세 번 그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태양이 단지 떨리는 것만 볼 수 있었다. 이때 성모님께서 태양 오른쪽에서 푸르고 흰 옷을 입으신 밝게 빛나는 묵주기도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셨다. 루시아는 그리스도께서 붉은 색 옷을 입으신 구세주로 나타나셔서 군중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과 성 요셉 사이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자주색 옷을 입으신 통고의 성모님이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이신 모습은 밤색 옷을 입으신 가르멜 산의 성모님이셨다. 성모님의 오른 손에는 스카폴라가 들려 있었다.

우주의 질서를 뛰어넘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루시아가 "태양을 보세요!"하고 소리치자 7만여 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다채롭게 돌아가고 있는 태양을 가리켰다. 그때 구름이 갑자기 갈라지고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부신 태양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해가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명을 받았다. 회전하는 태양은 변화되어가는 색채로 인해 마치 살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 받기를 빌어야 한다.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끝없이 춤을 추듯 변화되고 있는 태양의 가장자리의 테는 옅은 색의 무수한 빛들을 발산했다. 태양은 마치 거대한 물레와도 같았다. 태양이 처음으로 갈라진 구름 사이로 나타났을 때 그 움직임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급회전하더니 2-3분 동안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발산했다. 잠시 후 회전도 멈추고 빛들의 방사도 멈추더니 이번엔 태양이 떨기 시작하면서 벗겨진 구름 속에서 떠다니기 시작했다. 태양은 다시 다채로운 색깔의 광채를 내뿜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기 시작했다. 그 후 태양은 어지러울 정도의 회전과 다채로운 빛의 방사를 그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떨리면서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른 회전과 특이한 움직임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흔들리면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다. 태양은 정말 땅과 공포에 질린 군중들을 향하여 좌우로 흔들리면서 밑으로 내리박히듯이 내려오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하얗게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골짜기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공포에 떨게 했고 마치 영혼도 없는 뜨거운 열기로 된 괴물이 비틀거리면서 내려왔으며 땅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더 뜨거워졌다. 그들은 공포로 완전히 마비되는 것 같았으며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충돌할 것 같은 이 불덩이에 의해 부서지거나 타버릴 것 같았다. 대부분의 군중들이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공포와 고통에 찬 아우성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왔다.

"오,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마리아여, 저희를 구하소서!"

"나는 믿습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긴장과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지구를 향해 떨어지던 태양이 제자리에 멈추고 황금색의 빛으로 평상시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태양의 정상적인 빛에 잘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은 재빨리 그들의 눈을 깜빡거리며 아래로 내리뚝했다.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기를 바랬던 그 기적의 증거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의 희망으로 왔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흠뻑 젖었던 그들의 옷뿐만 아니라 진창이 되었던 땅이랑 모든 것이 바짝 말라버린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신론자들,



(사진 ; 태양의 기적을 보는 군중들)

회의론자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문기자들을 포함한 수 많은 목격자들은 모두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누는 동안 그들 모두 똑같은 기적의 현상을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태양의 기적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예정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다른 기적과 다른 점이다. 한 편능로는 워낙 규모가 큰 초자연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집단 환각의 가능성도 이야기하였지만 무신론자를 포함한 수만 명이 집단으로 동시에 환각이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파티마에서 40km나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점과 태양의 향연 있었던 불과 10분 동안에 비에 젖었던 모든 물체가 강한 열기에 의해 말라버렸다는 사실은 집단 환각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또 다른 신기한 일은 파티마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에선 태양의 어떠한 이상 현상도 보지 못했으며 천문학자들도 이날 태양 관측에서 별 다른 징후를 감지 못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제한된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분명 하느님은 우주의 질서를 뛰어넘은 곳에 계시는 주관자이셨다. (다음호에 계속) **M**

(편집자주 : 다음은 <http://home.megapass.net>에 실린 파티마 성모 발현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1) 예수님,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말씀이신 당신을 흠송 하나이다! 예수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신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새로 태어난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을 믿나이다!

2)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당신을 낳으신 마리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으니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당신을 흠송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흠송합니다. 새로 태어나신 저의 왕이신 예수님, 저는 마리아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축복이 특별한 은총임을 잊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이 은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내 사람이라고 고백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고,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먼저, 너희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범을 보여 주어라. 너희는 성탄절을 가정 축제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 가정에서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셔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전쟁에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을 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길을 잃고 비참해져 자기가 어느 편에서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

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1년 12월 25일)

- 예수님, 여기 당신의 구유 앞에 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만을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침묵중에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저는 그 거룩한 밤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당신의 오심과 계획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늘 높은 데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당신을 흠송하고 노래하나이다.

제 영혼이 기쁨에 떨게 하시고 제 마음이 모든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침묵 중에 ...)

예수님, 저는 오늘밤 당신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 어린 아기로서 저희들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현존은 기쁨을 가져다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에로 열게 하시니 찬미와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셨음을 보여주는 선물을 가지고 온 목자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마음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소서. 목동들처럼 당신께 경배를 드린 다음 당신의 사랑을 증거할 용기를 얻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루카 복음사가는 저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루카 2,15-20)

- 예수님, 저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천사들과 목자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침묵 중에...)

예수님, 그 거룩한 밤에 자연 만물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동방의 왕들은 새로운 별을 보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지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당신을 발견할 때까지 견디어냈고, 왕께 드리는 선물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동방의 왕들과 함께 당신을 찬미하고 흠송합니다. 오 착하신 예수님, 그들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당신의 구유 앞에서 동방의 왕들이 당신의 복되신 어린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저도 마음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제가 제 삶 속에서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는 표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서를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

의 눈은 멀어 있었기에 당신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그들의 하느님이요 구세주로 알아 뵈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온 교회와 함께 당신께 노래하나이다.

모든 형제들이 즐겨 노래하며 베들레헴으로 달아가세

어서와 천사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께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주 그리스도 경배하세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는 빛

보라, 동정녀의 태중을 택하시어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신 참 하느님

천사들의 무리들이 노래 불러라

기쁨 중에 노래 불러라

하늘 위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불러라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

주님! 이 행복한 아침에 태어나신

당신께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시어 나타나셨으니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안전만을 위해 마음을 닫고 심지어 성탄절에조차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저는 헤로데처럼 당신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흠송합니다. 마리아여, 당신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구하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그 순간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그들의 죄, 악의에 찬 말, 행위 그리고 행동으로 당신을 죽이거나 그들 자신이나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자라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흠송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켜주실 것이기에 저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다른 이들이 당신의 평화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살고,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 특별히 어린이들과 젊은이

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신을 흠송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천상의 어머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이 성탄절에 그들이 보호와 안전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오늘 당신께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소서.

(가정불화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느님과 인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합시키셨으니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성탄절에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병자와 장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님,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홀로 고독하게 잊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탄절은 슬프고 어려운 때입니다.

- 예수님, 이제 저는 그들 모두를 당신 앞에 봉헌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소서.

(당신이 알고 있는 고독한 사람, 환자를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성탄절에 그들에게 위로, 평화, 도움을 주거나 사랑의 행위를 베풀 것을 결심한다.)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주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사랑을 일깨워주시는 작은 아기로서 함께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들, 가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집 안의 술주정뱅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아프거나 고통 때문에 성탄절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향하게 하시어 그들이 어린이들의 고



통을 위로하게 하소서.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하소서.

- 예수님, 당신의 오심으로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일깨워 주시어 평화가 모든 가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침묵 중에...)

예수님, 이 평화로운 날에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전쟁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오늘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받아들이고, 모든 총성이 멈추게 하시며 모든 반목이 그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오늘 정의와 평화

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봉헌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말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친다.)

축복 기도:

예수님, 당신께서는 오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제 영혼을 치유시켜 주소서. 평화와 선한 의지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 평화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축복해주시어 성탄절의 성령, 평화와 기쁨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그동안 '성 시간'을 애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 부터는 '거룩한 미사'가 연재됩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열심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빛 속에 거니는 양순하고 신심 깊은 영혼들이여, 천상정원에서 곧바로 내려와 당신 영혼의 정원에 심어진 이 신비로운 장미나무를 내가 당신들에게 드린다해서 마음을 꺼려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의깊게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본다면 그 나무는 놀랄만큼 높이 자라나 잠깐사이에 그 가지는 넓게 퍼질 것이며 당신의 모든 신심을 유지시키고 더욱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신비스런 장미나무는 삶과 죽음의 영원에 계신 예수님과 마리아이십니다. 푸른 잎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환희의 신비이며, 그 가지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고통의 신비를 말해줍니다. 꽃봉오리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유년 시기를 보여주고, 갓 피어난 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가난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활짝 피어난 장미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개선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천상나무를 경멸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의 정원 안에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결심을 하십시오, 묵주기도와 선행으로 나무에 주의를 기울여 물을 주고 그 나무 둘레의 흙을 파서 덮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준 이 작은 나무의 씨가 지금은 매우 작게 보이지만 장차 하늘의

새들이 즉 구원된 그리고 관상생활을 하는 영혼들이 거기서 살며 보금자리를 지을 만큼 크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그들이 그 나무의 영양 많은 열매로 배부를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영원히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공경하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 홀로 높으시니 영광받으소서. 아멘.

어린이들에게

사랑스런 어린 친구들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 꽃봉오리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묵주알들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이가 묵주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성모송을 잘 바친다면 이 놀라운 꽃봉오리는 찬란한 장미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에게 매일 15단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겠지만 적어도 5단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묵주기도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리아께 드리는 작은 장미 꽃다발이며

왕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죽은 후에라도 영원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식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위대한 사람이든지, 미소한 사람이든지 모든 신앙인들은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매일 바침으로써 예수님과 마리아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로마서 16,6)

묵주기도의 기원과 그 이름의 훌륭한

● 묵주기도의 기원

거룩한 묵주기도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와 천사의 인사로, 즉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구성 되었는데, 이것은 신앙인의 첫 기도요 첫 신심임을 의심할 수 없으며, 사도들과 교부들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1214년에 이르러서야, 자모이신 성교회가 현재 형태의 묵주기도 방법을 받아 들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 교회에 전파된 이 방법은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알비파의 이단과 다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복자 알라노께서 쓰신 "묵주에 존엄성에 대하여" 라는 매우 잘 알려진 책에서 발견된, 즉 복자 알라노께서 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사람들의 무거운 죄악이 알비파 이단들의 회개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시고 툴루스 가까이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열심히 통회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몹시 상하게 될 만큼 고행(편태)를 한 후 끝내는 혼수상태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세 천사를 대동하시고 성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미니코, 너는 성삼위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려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도미니코 성인은 "오! 나의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우리 구원의 중요한 도구로 항상 모시고 있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구원의 중요한 도구이시니 저보다도 더욱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영신적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린 도구와 무기는 언제나 신약의 기초가 되는 천사의

찬미가였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가 저 완고한 영혼들에게까지 도달하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들여 승리하고 싶다면 나의 찬미가(묵주)를 전파하여라. 성인은 이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일어나, 그 지역 사람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정에 불타 곧바로 대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즉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종을 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고, 도미니코 성인은 그들에게 강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론을 막 시작하자 무서운 강풍이 불고 땅이 흔들리며 태양이 가리어져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므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활을 고치지 않고 천주 성모의 보호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팔이 하느님의 분노의 징벌을 불러 내리는 모습이 세 번이나 완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묵주기도의 새로운 신심이 퍼지고,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도미니코 성인의 기도로 폭풍을 잠재울 수 있었으며 성인도 강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강요당하듯이 열정적으로 거룩한 묵주기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던 것이며 툴루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묵주를 붙들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된 생활방식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커다란 진보가 이 마을에서 이루어 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을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과거의 나쁜 생활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시편

일찍이 도미니코 성인께서 거룩한 묵주기도의 신심을 일으켜 세운 이후 복자 알라노께서 1460년 다시 일으켰을 때까지 묵주기도는 언제나 예수님과 마리아의 시편(찬송)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다윗의 시편 찬미가처럼 천사의 방문인사(성모송)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박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들을 기도할 수 없지만 다윗의 시편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처럼, 묵주기도가 그들에게는, 마치 풍부한 과일같이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는 아래3가지 이유에서 다윗의 시편보다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천사의 찬송(성모송)에는 더 훌륭하고 고귀한 열매, (즉 다윗의 시편이 다만 구세주 오심을 예언한데 비추어) 말씀의 강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 둘째로, 마치 실제적인 물건이 만들어지기 전 형상보

다 더욱 중요한 것과 같이, 그리고 몸이 그림자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이,그와같은 이치에서 성모님께 대한 찬송가(성모송)는, 만들어지기 전 형상에 불과한 다윗의 시편보다는 더욱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셋째로, 성모님께 대한 찬송가(시편) 즉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이루어진 묵주기도는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의 직접적인 업적이며 인간방법이나 도리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시편, 즉 묵주기도는 매 5단씩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1.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의 영광을 공경하기 위함이며
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영광을 공경하기 위함이며,
3. 천상교회의 개선을 본받고 지상교회를 도우며 단련 받는 연옥의 교회가 받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고,
4. 3편으로 나뉜 찬송 시편의 신비를 본받기 위함이나 즉 첫째부분은 수련과 정화되는 생활을 위한 것이고 둘째부분은 빛을 받아 밝아지는 생활을 위한 것이고, 셋째부분은 일치되는 생활을 따른 것이 됩니다.
5. 끝으로, 현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풍부히 얻고, 죽을 때에는 평화를, 영혼에서는 영광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안내

- 1월** : 이집트,이스라엘,메주고리에 (16일)
이태리,메주고리에 (11일)
- 2월** : 그리스,터키 (13일)
그리스,터키,메주고리에 (15일)
이태리,메주고리에 (11일)
- 3월** : 이태리,메주고리에 (11일)
- 4월** : 이태리,메주고리에 (11일)
이집트,이스라엘,메주고리에 (15일)

진주여행사

☎ (02) 738-0747 / 이 카타리나: 010-3022-9767

하느님도 웃는 기도

하느님, 지난 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가이 -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쉬는 날엔 누가 그 일들을 대신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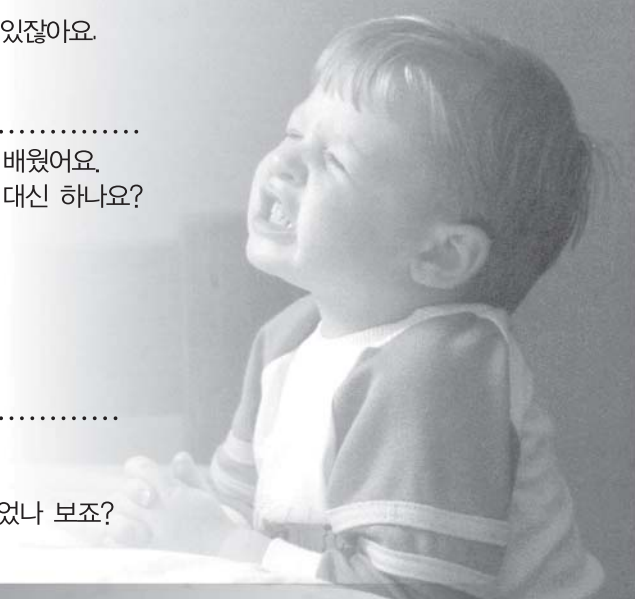
- 제인 -

하느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얼굴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 킴 -

하느님,
부인 이름은 왜 성서에 안 나와요?
성서 쓰실 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었나 보죠?

- 래리 -



성모님이 백배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봉쇄 수도원에 있는 수녀님의 편지-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 있는 ○○○봉쇄 수도원에 있는 한국 수녀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읽고 한국에 계시는 ○○○신부님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한국 주소를 알려 드리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고맙게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소식지 (42, 43, 44호)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몇자를 올립니다.

봉쇄 수도원의 조건상 '메주고리에'의 소식에 목말라 있던 차 이렇게 한국어 소식지가 있다는 걸 알고선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실린 모든 글들을 참으로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우편값도 많이 나갈텐데 그것도 5부씩이나 보내주셔서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이 귀한 것을 최대한 전해야 하는데 제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보내려면 원장님의 허락을 청해야 하고, '메주고리에'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지 않으시니 그것도 한국에서 보내와 다시 한국으로 부친다는 것 등, 감히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사이, 한국 가족에게 소포를 보낼 기회가 있어 그 편을 이용해 한번은 성공을 했지요. 그리고는 소식지가 한참을 안오기에 우편료도 너무 비싸고 또 저는 후원금을 보내드릴 입장도 안되니 이제 안 보내주시려나 보다고 혼자 생각만 하고 궁금해하며 마냥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언니가 방문을 해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권하면서 소식지 얘기를 하니 언

니가 프란치스코3회 회원이라면서 본인도 소식지를 받고 있으며 매달 오는 것도 있다고. 그런데 언니는 아직 저만큼 '메주고리에'에 반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한참 전부터 가끔 국제 전화가 올 때 '메주고리에'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느낌을 보였는데 제가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알아 듣고 요번에 만났을 땐 많이 긍정적이었어요. 언니는 10월 초에 다녀갔는데 그 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찾아가서

1. 죄송하지만 형편이 어렵겠지만 언니가 후원금을 좀 내 줄 수 있으신지

2. '메주고리에' 소식지 1번부터 41번까지를 언니가 얻어서 이곳으로 좀 부쳐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언니가 있는 동안 마침 45호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 편에 또 형제들 각 가정에 나누어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언니가 떠난 후 얼마 안 있어 46호가 또 왔어요. 저는 이제 영 다시는 못 받을래나 하고 있던 차에 연달아 이렇게 받으니 무척 반가웠어요.

후원금을 못 보내드렸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내 주신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 귀한 걸 이렇게 보내 주신다는 건 분명히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바래서인데 누구에게 보내 줄 수도 없고 서랍속에 간직하기는 억울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비싼 우편료를 지불하면서까지 5부씩이나저에게 도착하도록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건 전파하라는 얘기가' 라는 확신이 들면서 성모님께 이걸 당신 사업이니 당신이 알아하십시오. 하고선 날을 잡아 원장님께 부딪혔습니다. 저로서는 모험을 하는 셈인데 자칫하면 저까지도 소식지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한 순명할 각오



를 하고. - 사실 성공할 확률은 1%.....-

마침 이번호 제일 뒷부분에 이북의 실상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래 그 얘기로 시작해서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대한 찬사를 숨도 안 쉬고 일장 연설을 했지요.

아!!! 성공했어요. 허락을 주셨어요.

성모님께 감사! 감사!

기도의 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게다가 그 다음날 다른 수녀님이 저와 똑같은 신청을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으니 ... 이 일로 인해 원장님의 입장이 조금 난처할 뻔 했는데 제가 대신 십자가를 떠 맡았지요. 조금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마귀가 신경질이 나서 심술을 부렸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번 교황님의 말씀 중에 '두려워 마십시오' 라는 당부를 저 자신에게 일러주며 성모님께 의지하니 그 분위기에서 빨리 빠져 나올 수 있었어요.

아! 다시 한번 선교회에 감사를 드려요.

제 주위에 최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원하면 직접 선교회에 신청을 해서 메시지를 받아 보도록 주선하고 저는 또 새로운 대상을 향해 우편을 띄울 예정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북의 실상을 읽고 20단 목주 기도에 특별히 남북통일을 위해 1단을 더 추가해서 그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활에서 목주기도 5단을 위한 시간도 쉽지 않았는데, 성모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심을 체험한 후 하고자 하니 당신 친히 시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동안의 소식지만으로는 빠진 메시지가 많아 이왕이면 소식을 보내실때 매달의 메시지도 추가로 보내주시는 수고를 부탁을 해도 될까요? 메시지를 받으면 복사를 해서 주머니에 넣을 정도의 수첩에 기록, 틈틈히 다시 읽어보는데 빠진 메시지가 있어서요. 저의 신분상 각종 행사에 참여는 못하지만 선교회의 수고가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 성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대신 기도 많이 할게요.

만일 유럽에 오시게 되면 저희 수도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럼 그 모든 수고를 성모님이 친히 백배로 갚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유럽의 000봉쇄 수도원에서 ㅇㅇㅇ수녀 드림 **M**

(위의 내용은 유럽의 한 봉쇄수도원에 계시는 한국 수녀님이 메주고리에 소식을 읽고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안내

1월 : 동유럽과 발칸, 메주고리에(16일)

2월 : 풀비오 신부님(이탈리아구마사제)과 피정 및 메주고리에 순례 (11일)

3월 :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월 : 교황님과 부활절 바티칸 미사 참석 및 남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5일)

4월 : 풀비오 신부님과 피정, 로마, 메주고리에 순례 (11일)

5월 : 파티마 92주년 기념 및 성모 성지 순례 - 16일

5월 :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서울 마리아 센터

☎ : 02-723-5425, 조 보스코 : 011-273-3260



28명 사제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신 폴란드 주교님

주님께서 환시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도 18,9)

2008년 10월 6일, 폴란드의 브워크와베크 교구장 비슬로우 알로이시 메링 주교는 브워크와베크 교구의 사제 28명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였다. 브워크와베크 교구는 파우스티나 성녀, 성 막시밀리안 콜베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존경받던 은사 비진스키 추기경의 출신 교구로 잘 알려져 있다.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그들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하는 9일간의 기도와 배움의 여정으로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성전, 다른 성지를 방문하였다. 그 중 중요한 일정은 메주고리예 본당의 평화 방송국 관장 밀렌코 슈테코 신부를 만난 메주고리예 방문이었다. 슈테코신부는 방문자들에게 본당의 생활과 사목활동에 관하여, 복되신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그리고 그 심각성에 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메링주교와 사제들은 메주고리예의 저녁 전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9월 24일 수요일 성모님 발현산에도 올라갔다. 메링 주교는 폴란드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도 하였다. 주교님은 기쁘게 폴란드어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하느님의 백성들과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메링 주교와 사제단은 모스타르 시의 프란치스칸 성당을 방문하

여 미사를 집전하였다. 다음은 메링 주교의 강론 말씀이다. "우리 신부님들은 지난 27년 이상 유럽 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메주고리예를 찾아 와 직접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순례자들과 함께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가 교회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곳의 모든 것이 다 자연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전에 이미 메주고리예를 순례한 몇몇 신부님들은 이곳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인내심으로 메주고리예 순례자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쳐 주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M**

-Medjugorje.hr에서-
한 아오스팅 마리아 역



열가지 비밀에 대하여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여왕 (7)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율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질문 : 미리아나, 성모님이 주신 열 가지 비밀에 대해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있으면 좀 말해 주겠습니까?

미리아나 : 처음 두 가지 비밀은 전세계에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질문 : 그렇다면 세 번째 비밀은요?

미리아나 : 세 번째 비밀은 메주고리에에 세워 주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 표징은 영구적이며 파괴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질문 : 열 가지 비밀은 지역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계적인 것입니까?

미리아나 :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질문 : 그 비밀들은 메주고리에에 사람들이 겪을 고통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계 사람들이 겪을 일입니까?

미리아나 : 전세계 사람들이요.

질문 : 당신은 전에 여덟 번째 비밀이 앞의 일곱 가지 비밀보다 더 심한 것이고, 아홉 번째 비밀은 그보다 더 심한 것

이며, 그리고 열 번째 비밀은 완전히 심한 것으로 조금도 경감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리아나 :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한 마디도 비밀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리아나 : 이곳의 성모님 메시지는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회개란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 : 비밀들이 실현됨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미리아나 : 비밀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더 이상 매일 발현하지 않으셨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미리아나 : 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

사탄은 우리에게서 천국을 훔쳐가고자 합니다

했지만, 성모님께서서는 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6일 후,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더 이상 정기적으로 발현하지 않으시고, 제 생일날인 3월 18일과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오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발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시길 정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제가 성모님을 매일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성모님과 함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질문 : 당신의 귀로 성모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습니까?

미리야나 : 아니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질문 : 현재 성모님께서서는 매월 2일 당신에게 발현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미리야나 :** 지금은 제가 성모님을 특별히 필요로 할 때 오십니다. 그리고 발현은 늘 비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밀들을 아는 데서 오는 중압감을 견디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모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질문 : 비밀들은 끔찍한 것입니까?

미리야나 : 네, 너무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비밀들이 그만큼 나쁜 일들이지만, 동시에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러 찾아오시는데, 지금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미리야나 : 하느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살아 있기 위해서 정말이지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 :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 때문입니까?

미리야나 : 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과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질문 :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리야나 :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경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다 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는 진짜 열매란 불만, 평화의 결핍, 슬픔뿐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간직할 수 없는 것들에다 삶을 허비하며 고통 당할 때 매우 슬퍼하십니다. 지금은 큰 은총의 시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을 걸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당신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바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미리야나 : 글썽요,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청했고,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모님과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도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질문 : 그래서 성모님께서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녀에게 기도하고 단식하며 보속하도록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모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벌써 여러 해째 성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미리야나 : 네, 저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성모님과 저는 아주 친한 모녀 관계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십니다.

질문 :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눕



천국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생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느님과 더불어 생명을 얻습니다.

질문 : 미리아나, 대화를 끝내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미리아나 : 네, 사람들에게 사탄의 힘에 대해 경고해주시고, 사탄은 우리에게서 천국을 훔쳐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참된 보상으로 천국을 얻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너무 극심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이 땅의 그 무엇도 한 순간도 걱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니까?

미리아나 : 우리는 늘 성모님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모든 자녀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질문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서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묵주기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족기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간청하시며, 하느님의 모든 자녀가 천국을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까?

미리아나 : 특별히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께서서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신 예수님 생애의 환희, 빛, 고통, 그리고 영광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마음으로 묵주

질문 :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리아나 : 하느님의 품 안에서 갓난아기가 되십시오. **M**

* 다음호에는 발현목격증인 이반카와 메시지가 연재됩니다.

2008년 10월 2일 미리아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다시 신앙으로 부른다.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는, 너희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오직 신앙만이 인생의 시련 중에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가 삶의 유일한 기쁨이며 행복인 신앙을 발견하도록
너희 이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내 주위로 불러 모은다.



교회의 성사와 기도로 인도하는 메우고리예

미국 스투벤빌 프란치스코 대학교 신학과 마리아론 박사 마크 미라발레 교수와의 인터뷰

(미국 슈트벤빌 프란치스코회 대학의 마리아론과 신학을 가르치는 마크 미라발레 교수는 여덟 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종신부제이다. 그는 로마에서 박사학위 중, 발현 초기 메우고리예의 진실을 조사하며 알게된 인연과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발현 목격증인들은 성인이어야 하는가?

질문 : (...) 세상의 주목을 받는 메우고리예의 발현목격증인들의 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크 교수 : 발현목격증인들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그 진실성을 가리는데 어떤 기준을 지니고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발현목격증인의 성화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발현들의 시작으로부터의 기본 정직성입니다. 어떤 발현목격증인들과 성인들의 경우 상당히 세속적인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인이 된 발현목격증인들은 발현이 있기 전의 생활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태오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우고리예의 발현목격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고차

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실성의 기초와 발현목격증인들의 생활 스타일의 기초의 정직성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고차원적인 성화는 발현의 진실성을 따지는데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성 요한 비안네는 라 살렛트의 발현목격증인들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된 발현일 수 없다. 발현목격증인들이 거룩함으로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가 라 살렛트의 발현을 인정했을 때 성 요한 비안네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교회가 지닌 최종적인 진실성의 기준은 발현목격증인의 거룩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직성과 청렴함입니다. 저는 메우고리예의 발현목격증인들이 성모님께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기꺼이 봉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께 한 번은 어느 여인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고해성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 발현목격증인은 하느님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성 베네딕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싫어진다면 귀퉁이에 처박으십시오." 이런 행동이야말로 발현목적증인들의 행동이어야 하고, 메시지를 받아드리는 사람들의 처신이어야 합니다.

변한 메주고리에, 여전한신 성모님

질문 : 여러 번 메주고리에방문하셨는데... 26년 동안의 이곳의 발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마크 교수 : 1984년에 두 번, 1992년과 올 해가 네번째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 파티마와 루르드의 입구처럼 이곳도 많은 상점에 둘러 싸였습니다! (...) 성모님께서 축복해주신 묵주 하나 집으로 가져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발현언덕에서보다 성물가게에서 더 시간을 보낸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1984년 (...) 당시에 오셨던 그 어머니는 지금 오시는 그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순례자들이나 사제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물 쇼핑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 영적인 열매들은 그 자체가 드러내고 있다고 여기며, 이것은 제시된 메시지를 분석할 때 평가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분별기준

질문 : 교회의 분별기준에 대해서는?

마크 교수 : 교회가 발현들을 분석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 **메시지 내용.**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과의 관계는? 제 박사논문에서 교회의 회칙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메주고리에 메시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어떤 말보다도 많이 사용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사랑, 기도입니다. 메시지는 건전하고 정통성이 있으며 모든 백성에게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적입니다.

2. **두 번째 교회의 분석 기준은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발현목적증인의 탈혼상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메주고리에의 발현목적증인들은 두 개의 의사 단체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는 프랑스 몽뻬리에 대학 의사들이었으며, 하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의사들이었습니다. 두 개의 연구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발현목적증인들은 시공을 초월한 한계를 뛰어 넘는 무엇인가와 통하고 있다고 했으며,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환각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3.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영적인 열매를 분**



석합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교회는 순간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속되는 영적인 열매를 찾으며, 40년 50년 동안 냉담했던 이들의 회개의 열매를 찾습니다. 이곳의 고해소 앞의 긴 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이 이곳에 순례를 옵니까! 메주고리에의 핵심 메시지는 기도와 교회의 성사생활로의 회귀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그 어떤 발현사건도 메주고리에 발현 같지가 않았습니다. 고해소 앞의 긴 줄, 미사에 집중, 곳곳에서의 묵주 기도 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메주고리에에 보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성서에 든 든한 바탕을 둔 증거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메주고리에 배경에 있다면, 사탄 최고, 최대의 대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렇듯, 제시된 메시지를 교회가 조사하고, 이런 판단 기준은 1978년에 만들어 졌으며, 메주고리에는 이런 과학적이고 신학적인 범주에서 최고의 상상할 수 없는 최고 단계의 최고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질문 : 얼마나 교회 인준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크 교수 : 사적 제시의 목적은 성경과 전통, 가르침에 대한 임무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세상의 현대교회를 보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막지한 표시들을 대합니다. 세상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평화의 메시지와 총체적인 평화를 왜 필요로 합니까? 평화의 부재에 대해서는 신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폭력과 태아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런 테러리즘이 있는 한 세상에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머니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구요? 저는 항상 파티마의 루치아 수녀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봉헌의 실현화를 위해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 더욱 기도와 단식하며, 메주고리에의 희생에 응답한다면 먼저 보편적인 인준이 있게 될 것입니다. **M**



하늘과 땅이 맞 닿는 거룩한 땅 메주고리에

2008년 10월 순례자

메주고리에서 27년 동안 발현하고 계시는 복되신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전에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늘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순례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어머니의 크고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미가 넘쳤다. 함께 했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사랑, 같은 체험, 같은 은총을 받으셨으리라... 이번 메주고리에 순례는 살아있는 성체와 예수님과 일치하는 기쁨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내 인생중에 가장 큰 기쁨과 축복과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감히 메주고리를 하늘과 땅이 맞 닿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복되신 천상 어머니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메주고리는 기적의 장소이며 무엇보다 회개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다. 고백성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신비의 은총을 온 몸으로 깊이 체험하게 해주는 거룩한 성사의 장소이다. 죄로 인해 가로 막혔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룩하고 복된 곳이다.

그동안 성모님은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시며 늘 나를 부드럽게 지켜보고 계셨다. 내가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기 시작한 것은 아니, 어머니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은 10여년 전에 친구를 따라 우연히 따라간 성물가게에서 어머니의 상분을 본 후였다.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에 첫 눈에 마음이 끌리고 그 상분이 갖고 싶어서 저 분이 누구시냐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성모님을 사겠다고 하자 주인은 "아닙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아름다운 여인, 우리의 어머니를 내가 모실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주었다. 사실 그때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그저 관심이 있어서 혼자 묵주기도를 배우는 중이었다. 처음 대하는 성모님이라서 잘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벅찬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하며 마음이 뿌듯하였다.

나는 그렇게 성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메주고리를 가고 싶었다. 드디어 꿈에도 갈망하던 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떠나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을 진정시키며 순례의 길에 올랐다. 첫 날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첫 미사를 봉헌할 때와 기적의 메달 성당에서는 순교자들의 피와 사랑

과 희생의 열매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뿌리내려주심을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더욱 더 값지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마음 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웠으며 깊은 감명과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어온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치유와 평화의 마을 루르드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평화의 치유의 마을 루르드에 도착하였다.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당과 발현 동굴안에 있는 성모님 기적수, 수 많은 순례객들과 웅장한 촛불 행렬은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성 베르나데르 수녀님의 생가, 세례방, 성당을 방문하며 놀랍고 감탄하였다. 루르드의 베르나데르 성녀는 성모님께서 손으로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며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 흙탕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 기적수를 마시고 침수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다. 이른 새벽 동굴 앞에서 침묵중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준비하며 성찰하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은 모든 것을 온전히 어머니께 의탁하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들이었다. 그 곳을 찾아온 수 많은 순례객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그 아무도 억지로 이 먼 곳을 찾아 오지는 않았으리라...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였으리라...

루르드 순례를 마치고 우리는 기차를 타고 다음 예정지인 파리로 출발하였다. 일행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새도 없이 잠을 청하며 쉬고 있었다. 미카엘라 자매님이 우연히 한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막내 아들 크리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자매님은 크리스를 통하여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신앙 체험을 계기로 남 그레고리오씨와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하게 된 일을 들으면서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으로 온 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낙태에 대한 잘못된 세상적 생각과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때 알았다. 왜 그



토록 성모님께서 메주고리로 나를 초대하며 기다리셨는지...

너무나 놀라고 굳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있던 다른 자매님들은 걱정하였지만 하느님께서 미카엘라 자매님을 통해서 크리스 사건을 알게 하시며 나에게 완전한 회개와 봉헌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오랜 세월동안 죄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죄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왔다... 나는 신자가 되기 전, 철없던 한 때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번 낙태를 하였다. 그리고 영세를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고 알았기에 형식적인 고백성사와 형식적인 기도만 드렸지 진실한 참회의 아픔과 보속의 기도를 봉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죄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느끼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메주고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고백성사를 해야지 생각하며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비행기에 앉자마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인지 지나온 죄가 눈 앞에 영화 처럼 펼쳐지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난 나의 죄가 너무나 아파서... 태어나지 못한 나의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자비하시고 인자로우신 나의 어머니께서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의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잘 있단다.” 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렸다. 나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는 너그러우시고 사랑넘친 어머니의 부드러운 말씀에 다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의 어머니, 나의 천상 엄마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지 나의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묻혀 사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어 진정한 자유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삶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곳 메주고리로 부르심을 깨달았다. 오후에 드르로브닉에 도착, 호텔에 투숙을 하고 저녁에 미사를

봉헌하는 도종이었다. 나름대로 조용히 더 성찰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메주고리에 도착하면 고백성사를 보려고 자연스럽게 저녁 미사를 참여하고 있을 때 영성체를 모실 수가 없어서 고백성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느꼈다. 죄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메주고리에 갈 때까지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백성사를 한 후, 모든 순례의 걸음 걸음과 숨결까지 보속과 감사의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약과 알콜 중독자들의 재활원 체나콜로 공동체와 오아시스 수도원의 수녀님의 감명깊은 체험담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삶의 현상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하며 선을 거슬러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우쳐 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참으로 이 메주고리에는 말씀과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이토록 자비할 수 있을까!

고백성사 후, 기적같이 죄의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보속의 기도, 봉헌의 기도가 올려졌다. 그 순간부터 나의 숨결과 온 몸이 영혼과 더불어 모든 것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인자로우신지 첫 순례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성사로 인도하시면서 죄의 무게를 덜어주셨다. 또한 천상 어머니는 순례의 한 걸음 걸음을 하느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찬미와 흠숭을 드리게 하셨다. 발현산의 환희와 신비의 묵상은 나에게 너무나 놀랍고 기쁜 체험의 은총이었다. 이른 아침에 오른 십자가산의 묵상과 기도는 참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기쁘게 참여하는 작은 우리의 사랑 표현이었다. 거친 돌 산을 오르내려도 돌뿌리에 발끝하나 상하지 않게 보살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였는지... 한날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생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마치 세례자 요한 같은 요조 신부님의 강론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셨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모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 온 시간들이 저런 사제의 열정과 사랑, 희생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 올 수 있었음을 큰 감명을 받았다. 마

살아서 넘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예수님과 천상 어머니가 늘 함께 하시는 곳, 하느님과 사람이 일치하는 곳, 사람과 사람사이의 치유를 이루어 주는 곳 메주고리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했다.

나는 이제 메주고리를 떠나지만 이곳의 모든 체험과 순간 순간의 시간은 나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가득 담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함께 할 것을 믿는다. 전에는 지식과 생각으로 알고 믿던 것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듯이 느끼며 살아 가리라 다짐해본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앞으로 어찌 힘든 일이 없겠는가라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산을 오르며 십사처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고통을 늘 마음에 담고 이제는 나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 갈 수 있음을 다짐해본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어머니 천상 엄마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삶을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성모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십자가 산에 박혀 있던 돌뿌리처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걸어다니는 메주고리에, 살아서 움직이는 메주고리에가 되어서 그곳에서 배운 당신의 사랑을 저도 삶속에서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서 최고 선물, 최상의 기쁨을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딸 드림 M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분께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여라.

-2004년 3월 25일 메시지-

2009년 사순절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24시간 고리기도에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24시간 고리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참여 시간과 개인지향을 기재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협조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기도 지향 :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 교황님과 교회를 위하여...
-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성화와 성모신심을 위하여 ...
- 세계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 봉사자들을 위하여...
- 40일 고리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의 개인 기도지향을 위하여...

**참여 방법 : 미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영적독서, 화살기도, 묵상, 희생, 봉사등등
40일 공동 고리기도 지향을 위하여 매일 미사가 봉헌 됩니다.**

절취선

성모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24시간 고리 기도 참여 신청서

40일 봉헌 기도시간	오전 () 오후 () 고리기도봉헌 () 협조기도봉헌() 기타()		
개인지향			
이름		영세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추천서적	루이사 피카레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평화의 모후 선교회)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요조 신부님의 피정을 마치면서...

27년만에 처음으로 느낀 성체성사의 거룩함...

사랑하는 예수님, 성모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죄 많고 이기심 많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밀떡인 성체로 오셨습니까? 이번 요조 신부님의 거룩한 피정으로 인하여 성체성사의 중요성과 존엄함을 영세 받은지 27년만에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참된 요조 신부님의 피정에 초대해 주신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피정을 통하여 성체성사의 중요성과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가족을 사랑하고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저 또한 1/1000 이라도 본받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거룩한 삶과 신앙심과 굳은 믿음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신부님의 넘치는 많은 사랑과 온유함을 존경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에

게 넘치도록 사랑 주시고 또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 요조 신부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갑니다. 신부님! 언젠가 다시 한번 신부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빛을 밝혀 주신 요조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옥에서 요조 신부님을 만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칸의 성소를 준비하는 내게 이번 피정은 확고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를 창조해 주신 아빠, 회개의 길에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찬미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성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미합니다! 카오스였던 제게 빛을 밝혀 주신 요조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로 도와준 헬레나 언니, 레지나 자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부감없이 이곳에 보내준 남편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내 대신 살림을 책임지겠다며 나를 격려한 딸 과 옆에 있어주기만 바라는 아들 클레멘스, 사랑하고 미안하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무장하며 내가 받은 이 은총과 기쁨을 나누는 생활을 하도록 청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찬미예수님

이 피정을 통해 제가 참으로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또 불러주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항상 기도도, 묵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용기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그동안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에 엄마의 초대에 제가 응답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엄마, 저를 불러 주셔서 너무 고맙워요. 동정녀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된 기회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다시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예'라고 대답하면서 재빨리 달려오게 은총 베풀어주세요. 어머니 다시 감사드립니다. 엄마! 언제나 엄마의 따뜻한 품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는 아기처럼요. 저를 아기처럼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깨끗한 영혼되고 싶어

요. 엄마!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일 저 자신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엄마가 전구해 주세요. 그 동안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많이 사랑할게요. 엄마도 항상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때 묻은 옷을 던져 버리고 ...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때 묻은 옷을 던져 버리고 은총의 옷, 축복의 옷, 성경의 옷을 갈아입고 마음에 많은 하느님의 선물인 사랑을 가슴 듬뿍이 안고 갑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며, 또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게 옳은 길만 가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미움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눈을 지니고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대녀, 이웃들에게 건강과 축복,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였던 건강과 사랑받는 것, 가족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피정

모든 것을 살게하고, 아름답게 피어나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피정이었습니다.

이곳에 불림받은 저 또한 축복이었고, 저를 사랑하는 이들의 위한 기도의 힘이었음을 믿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조 신부님과 메주고리예를 위해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문시봉(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최 레지나,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한 데레사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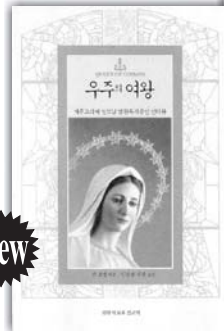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 지난 27 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이 책에서 목격 증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에의 부르심'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로 딸 및 성바로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이웃에게 성탄과 새해의 선물도 하시고 선교도 하세요.



**전품목
15% 할인**

- 엄마의 화살 기도(두숨 엮음)
- 우리 아이 성공으로 이끄는 10분 인생수업 (제이미 밀러 지음)
- 우리가 예수를 찾는(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1 & 2편)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이역 하늘 아래서(이석현 지음)
-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강길웅신부 지음)
- 존주성범(대 & 소) (토마스 아 켈피스 지음)
- 지혜로운 삶(짐 포 리스트지음)
- 피의 증거(황서영 백서를 찾아서)(전서권 지음)
- 한송이 해바라기처럼(고마태오 신부 지음)
- 행복을 위한 선택(최기산 신부 지음)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해인 수녀 지음)
- 화 제대로 내기(버트 게찌 지음)
-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박도식 신부 지음)
- 단팔뿔속에 남겨둔 행복(임경자 수상집)
- 내 안에 말씀이(이동호 신부 지음)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단계(마태오 린 지음)
- 믿음 희망 사랑(아베리오네 신부 영적가르침 (알베리오네 신부 지음)
- 하느님의 사람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소책자)
- 인격적 만남에의 초대(알버트 보드로우)
-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려라(헨리 뉴엔)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키딩 지음)
- 침묵속의 만남(칼 라너 지음)
- 연옥 실화(막심 뤼앙 지음)
- 시에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따올라 지음)
- 희망의 영성(데군도 갈릴레아신부 지음)
- 토마스 머턴의 씨앗(토마스 머턴 지음)
- 무혈의 순교(변기영 신부 지음)
- 나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이상각 지음)

- 세계성서 공회와 한국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1000여종의 서적 그리고 성서, 성물, CD, Tape 구비 (도서 목록 email 발송)
-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여종의 서적과 성서, 성물, CD, Tape에 대한 목록을 e-mail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처 :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미지, 강은미, 강진희, 곽복화, 고시몬, 고영아, 구유림, 김건일, 김경순, 김금성, 김남숙, 김마데라, 김복선, 김상원, 김성태, 김세록, 김만춘, 김매란, 김봉규, 김수경, 김승인, 김정연, 김정자, 김주희, 김준홍, 김엘리사벳, 김영서, 김영옥, 김옥희, 김원희, 김유경, 김윤순, 김율리안나, 김임직, 김현인, 김혜순, 김혜정, 김효정, 김태자, 김크리스티나, 김택권, 노마리아, 노종환, 도안나, 마정희, 문방자, 민정숙, 민헬레나, 민프란시스, 박난정, 박로사, 박문수, 박병칠, 박선희, 박영실, 박영미, 박혜선, 백안셀모, 세실리아, 서애자, 성낙우, 성혜경, 손마리아, 송종식, 신디아, 심세실리아, 신순덕, 신태경, 안실비아, 안연숙, 양테이비드, 엄봉화, 엄토마스, 여애경, 오데레사, 오 미카엘, 오순이, 오순옥, 유보영, 윤경이, 윤계순, 윤메리, 윤명분, 윤영희, 윤정숙, 윤정애, 윤헬렌, 윤프란체스카, 이동우, 이마리아, 이미숙, 이미애, 이미카엘라, 이복희, 이상환, 이선화, 이수동, 이순세, 이순자, 이아일린, 이엘리자벳, 이영희, 이요셉, 이유선, 이윤영, 이은경, 이은희, 이재현, 이진민, 이해연, 임아리, 임주자, 장숙영, 장한순, 잔슨윤숙, 전연희, 전진숙, 전현숙, 정광순, 정귀례, 정명좌, 정진일, 조안나, 조요한, 조은자, 조용옥, 진도미니카, 지니 김, 지현남, 최경순, 최동숙, 최성구,

최윤희, 최정봉, 최종금, 최혜진, 표상순, 허성용, 허명희, 홍경복, 홍성심, 홍옥선, 홍지영, 황계자, 황규희, 황정애, 황정환, 황혜정, 베네딕타, 방호일 신부님, 양바오로 신부님, 익명
 Eileen Cho, U. Leach, Chong Suk Dardy, Insuk Mullins, K. Larcenaire, Paul & mary Lee, Fairview Cleaners, Lisa Rigoni, David & Sunny Bertao, Yoon H. Lee, Yusun Yi, Tak Lee, Cathy Kim, Kim Madera, Hur Pil Hoan, Park Heung C, Jae Kang, Teresa Huff, Liz Chang, H. K, Jin B. So

- 메시지 목상지 '평화의 모후'를 인쇄해 주신 영인문화 인쇄소에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과 단체는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어디든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11,722.70
지출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3,895.56
잔액	- \$ 3,842.70



"마치 어린아이가 가장 좋으신
 어머니 곁으로 뛰어가듯 달려갑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영혼이 암흑 속에 갇혀 고통스러울 때,
 당신의 입술이나 마음으로
 단지 마리아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 막시밀리안 폴베 신부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Return Address Service Requested



Merry Christmas

2008 Medjugorje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